

# “부지휘자 시스템’ 갖추도록 노력”

박승희 광주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전국국립관현악단 회장 취임  
지역 비국악예고 출신 선출 이례적  
교류 공연 활성화·꿈나무 육성 중점



박승희 지휘자

“그동안 국악계는 서울국악예고·중앙대, 서울대·한예중 등을 분수령으로 하는 두 개의 축이 양대 산맥처럼 존재해 왔습니다. 실력과 개성을 겸비한 국악인을 발굴하기 위해 국악계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국악계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역 신예를 발굴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승희(56)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 지휘자가 지난 2일 대한민국 국공립예술단 국악지휘자 협회(이하 협회) 2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5년 2월까지.

지난해 중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 지휘자로 취임한 그는 광주예고와 서울대 국악과(파리전공)를 졸업했다. 이후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예술감독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다.

지역의 비국악예고 출신으로 그가 협회 회장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국악계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적 성찰에서 비롯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21년 창립한 협회에는 전국의 국공립 예술단의 국악지휘자협회 30여 단체가 소속돼 있다. 기자는 그와의 인터뷰에서 협회의 방향성 및 역점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회장은 “모든 국악 단체에 ‘부지휘자 의무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대부분 교향악단은 상임부지휘자가 있는데, 국악관현악단

반해 초연 무대가 많은 만큼, 부지휘자의 해석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등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국공립예술단에는 대부분 부지휘자 자리는 공석이거나 없다.

그는 “지휘계 전반에서 작곡과 지휘, 양악과 국악 모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부지휘자 시스템 전면 도입은 ‘국악관현악’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악 예술단체들의 동서, 지역과 수도권 간 교류 확장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쌓은 역량을 전국에 펼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교류 공연, 협연 등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협회장으로서 공들이는 사업 가운데 하나는 국악 세대기 육성을 위한 ‘청소년 협연의 밤’ 확대다.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협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차세대 국악인 발굴에 역점을 두고 ‘지휘자 양성 프로젝트’와 묶어 진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피리, 대금 등 6종목에 걸쳐 전남대, 서울대, 한양대, 한예중 등에서 추천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콩쿠르 금상 이상 등을 추천 요건으로 하며 학부·박사과정생들에게 각 두 곡씩 지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악계에 입문하는 새 얼굴이 신진 협연자와 함께 호흡을 맞춰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학교나 콩쿠르뿐만 아니라 협회의 지휘자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지휘자로 데뷔하는 길을 넓혀준다는 포석이다.

“앞으로 협회가 국악 꿈나무를 육성하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미려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울러 국악 관현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습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60~70년대 풍미...배우 남궁원 별세

‘빨간 마후라’ 등 영화 300여편 출연...홍정욱 전 의원이 아들

서구적 외모로 한국의 ‘그레고리 펍’으로 불렸던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씨가 5일 작고했다. 향년 90세.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남궁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그가 수년 전부터 폐암 투병을 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1934년 경기 양평에서 태어난 그는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다니다 영화계에 입문했다. 당초 연예인에 뜻이 없었던 그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다 어머니가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영화 쪽에 발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1959년 영화 ‘그 밤이 다시 오면’으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이후 1999년 마지막 작품으로 기억되는 ‘애까지 배우로서 출연한 영화가 345편에 달한다.

주요 작품으로는 ‘자매의 화원’ (1959), ‘빨간 마후라’ (1964) ‘내시’ (1968), ‘화녀’ (1971), ‘아이리브 마마’ (1975), ‘피막’ (1980), ‘가슴달린 남자’ (1993) 등이 있다.

고(故) 신상옥 감독과 연이 깊어 ‘자매의 화원’ (1959) 등 여러 작품을 함께 했다.

연극에도 관심을 보여 1960년대 초 ‘로미오와 줄리엣’, ‘부활’, ‘닥터 지바고’ 등의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대표적인 미남 배우로 ‘아로나민 골드’(일동제약), ‘웨미리 쥬스’(해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 해럴드 명예회장 등을 지냈다.

노년에는 당대 함께 활동했던 배우 신영균, 프랑스에서 작고한 고(故) 윤정희·백건우 부부 등과 교분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 ‘7막 7장’의 저자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 율가니가 회장이 아들이다. 유족으로는 아내 양춘자, 홍 회장을 포함해 1남 2녀가 있다.

빈소는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8일 오전 9시30분, 장지는 경기 포천시 광릉추모공원이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조화와 부의는 받지 않는다고 유가족은 전했다.

/연합뉴스

## 배우 이설과 한밤 ‘낭독 데이트’

‘한밤의 낭독자들’ 내일 인문360° 출연... ‘나의 ‘최애’가 하는 말’

마음으로 나누는 소통의 시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한밤의 낭독자들’을 오는 7일 밤 9시에 온라인플랫폼 인문360°에서 진행한다. 이번 출연자는 뮤지비디오, 영화, 드라마 등을 넘나들며 카메라에 같은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배우 이설(사진)이며 주제는 ‘나의 ‘최애’가 하는 말’.

한밤의 낭독자들은 명사들이 책 속 구문을 직접 선별해 읽어주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온라인 릴레이 낭독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정지우 작가를 비롯해 박준 시인, 장항준 영화감독 등이 출연했다.

배우 이설은 2016년 박재범 뮤지비디오 ‘시티브리즈’로 데뷔했으며,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신혜연 역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영화 ‘믿을 수 있는 사람’, ‘흐르다’, ‘천더버드’ 등에서 주연을 맡아 왔다.

문예위 관계자는 “배우,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직접 읽어주는 책 속 문장들이 청년들에게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의에 이어 여행작가 최갑수가 ‘여행 후에 다가오는 것들’ (14일)을, 소설가 김중혁이 ‘이야기꾼이 반한 기가막힌 순간’ (21일), 유튜브 김겨울이 ‘독서가의 밑줄 긋기’ (28일)를 주제로 각각 시민들을 만난다.

프로그램은 인문360 공식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OTT 플랫폼 등에도 공개 예정.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장애 어린이 가족에 드리는 위로의 시

화순 출신 민금순 시인, 동시집 ‘나도, 알고 있지만’ 펴내

우리 주위에는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멈출 수 없는 이들이 있다.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호르몬 영향으로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동시집을 펴낸 이가 있어 화제다.

화순 출신 민금순(사진) 시인이 주인공.

‘문학세계’ 동시와 ‘문학춘추’ 시로 등단한 그는 지금까지 ‘낙엽이 아플까 봐’, ‘씨앗을 심을 때’, ‘꽃들이 하는 말’ 등 다채로운 동시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민 시인이 펴낸 ‘나도, 알고 있지만’(한림)은 장애인식 개선에 초점을 둔 기획동시집이다. 민 시인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여러 가

지 문제들을 헤쳐 나가면서 속울음을 울렸을 가족들이 많다”며 “아이들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다독여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맑은 날/ 정동진 파도는/ 한 가족 된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기다려 준다// 내가 조금 느려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우리 가족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가족은 사랑이라는 것/ 나도, 알고 있지만”

위 시 ‘파도처럼’은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기다려’ 주는 파도의 모습을 시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느려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가족을 파도에 비유한 것이다. 화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족’이며 ‘사랑’이라고 노래한다.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자 시인이 가장 하고 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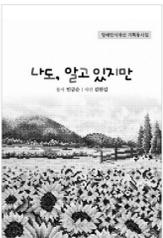


은 말이다.

민 시인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 속에서 편견 없이 어울려 살아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정혜진 아동문학가는 이번 동시집에 대해 “장애를 지닌 어린이와 속울음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드리는 위로의 시”라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아주 느긋하고 끈기있게 이겨나가는 바라는 응원 시”라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